

# Must-Know

에디터. 백아영

글. 앤드루 러세스(Andrew Russeth, 미술 저널리스트)

2020년 서울로 이주했을 때 한국 현대미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 기쁘면서도 동시에 미묘한 안타까움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았다. 뉴욕 등지의 소형 스튜디오와 허름한 갤러리를 찾다니며 동시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장하고 점차 폭넓은 관람객에게 다가서는 과정을 지켜본 나로서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변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슬픔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뉴욕 현장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다. 뜻밖에 미국과 유럽 갤러리가 서울에 유입되면서 부분적으로 타격을 완화했고, 현지 딜러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외에서 명성을 얻은 신진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큰 기대감을 갖는다. 누가 기대에 부응하고, 누가 부응하지 못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스타그램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신비로우면서 섹시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림, 매혹적이며 미니멀한 팝송을 창작하는 런던 예술가 이시 우드(Issy Wood)의 일민미술관 전시 《I Like to Watch》(9.7-11.12)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아직 한국에선 인지도가 높지 않은 다른 아티스트를 깊이 생각한다. 다음은 아직 한국에서 접하지 못한, 그러나 만나고 싶은 몇몇 예술가의 목록이다.

## 자미안 줄리아노-빌라니 Jamian Juliano-Villani



Courtesy of Massimo de Carlo, Photo by Alessandro Zambianchi

자미안 줄리아노-빌라니의  
〈Blue Boy〉(2022).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햇수로 4년째, 두 나라의 아트 신을 가까이 경험한 미술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앤드루 러세스가 전한다. 아직 한국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 알아두면 좋을 미국 예술가.

First, I must confess that when I moved to Seoul in 2020, I was thrilled to be able to dive headfirst into Korean contemporary art, but I also felt a touch of sadness. I had spent years visiting tiny studios and scrappy galleries all over New York and elsewhere, watching artists of my generation as they developed their practices and reached bigger and bigger audiences. Living in Korea, I knew I would not be able to follow along so closely. Truth be told, though, I have rarely found myself missing the New York scene. The sudden influx of American and European galleries has helped cushion the blow, and local dealers have offered a continuous stream of delights. Still, it is exciting when emerging artists from abroad come to town. We get to see who lives up to the hype and who does not. (Instagram can only tell us so much: Usually very little.) Right now, I am eagerly awaiting the Ilmin Museum of Art's show, *I Like to Watch* (Sep.7-Nov.12), with the closely watched London artist Issy Wood, who makes mysterious, sexy, charismatic paintings, and alluring, minimal pop songs. And as I wait patiently, I am thinking about other artists who have not yet had a star turn in Korea. Below are a few people that I hope to see here before long.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미안 줄리아노-빌라니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작가다. 초기 작품은 인터넷, 미술사, 만화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거침없이 조합한 짜릿함을 선사하는데, 이는 정보와 이미지가 넘쳐나는 현 상황을 잘 반영한다. 최근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힘이 느껴지는 여백의 미를 담은 작품 활동에 집중하는 작가는 2022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신호등 불빛으로 “닥쳐”라는 명령을 내리는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가고시안(Gagosian)에서 전시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맨해튼에서 기성 문법에 대항하는 오픈라허티스(O’Flaherty’s)라는 갤러리를 운영한다. 또 괴상하기로 유명한 아티스트 컬렉티브 젤리틴(Gelitin)의 퍼포먼스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The New York painter Jamian Juliano-Villani is a force of nature. Her exhilarating early paintings were wild amalgams of images cribbed from all over the internet, art history, and comics. They capture the information and aesthetic overload of today. Recently, she has been crafting sparse, wry pictures with a koan-like potency. One at last year’s Venice Biennale showed a traffic stoplight whose lights offered a command: “Shut Up.” There are rumors of an upcoming show at the Gagosian, and she has been running a rules-flouting gallery in Manhattan called O’Flaherty’s with friends that have been unleashing all kinds of mayhem, like performances by the reliably obscene Austrian collective, Gelit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lery Vacancy

## 시드니 셴 Sydney Shen

마찬가지로 뉴욕커인 시드니 셴은 공포 영화, 고스족 서브컬처, 중세 고문 장치,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같은 소재를 바탕으로 불길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코믹한 조각을 선보이는 작가다. 셴의 작품만으로 지난 3월 아트 바젤 홍콩의 부스를 꾸민 상하이 소재 갤러리 베이컨시(Gallery Vacancy)의 쇼케이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본 페어 부스 중 가히 최고였다.

시드니 셴의  
〈First Chair〉(2023).

## 신헤지 Shin Heji

면도날처럼 기민한 시선으로 사진 작업을 하는 신헤지의 거침없고 유쾌한 작품은 작가가 서울 출신이지만 지금까지 서울에서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다. 신헤지의 대표 연작 중 하나인 갓 태어난 아기가 왕관을 쓰고 있는 사진부터 경찰관 복장을 한 포르노 스타가 등장하는 시리즈, 수탉을 크게 프린트한 〈빅 콕스(Big Cocks)〉 등 그동안 눈에 띄는 작품을 많이 제작했다.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독창적 미감을 선보이는 패션 사진작가로도 활약하는 신헤지에게는 어떤 입맛에도 맞을 만한 기묘하고 매혹적인, 어쩌면 불편한 ‘무연가’가 있다.

Sydney Shen, also a New Yorker, creates sinister, darkly comic sculptures informed by the language of horror films, goth subcultures, medieval torture devices, and amusement-park rides. Her solo outing with Shanghai’s Gallery Vacancy at Art Basel Hong Kong was one of the best fair booths I have seen in recent years.



Courtesy of Galerie Buchholz

신헤지의 〈Embedded  
Photographer (insane)〉(2021).





Courtesy of the Artist and 47 Canal, New York, Photo by Alivia Zivich

놀런 사이먼의  
〈A Tender Science〉(2022).

## 놀런 사이먼 Nolan Simon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놀런 사이먼은 기묘한 에너지를 담은 데드팬 페인팅을 제작한다. (조금 더 변태적인 강석호 작가로 상상하면 된다.) 그의 작품에서는 여성스러운 발에 차(茶)를 부어놓거나, 쿠프 잔(삼페인 잔)들을 수갑으로 묶은 장면도 볼 수 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명한 공간 47 커널(47 Canal, 아니카 이(Anicka Yi)와 जो시 클라인(Josh Kline)도 이곳에서 전시한 적이 있다)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 흥미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의 물감 다루는 실력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Nolan Simon of Detroit makes deadpan paintings that harbor uncanny energies. (Think of the great Kang Seokho with a bit more perversity.) Tea is poured on a feminine foot in one. Handcuffs unite coupe glasses with one another. Each of his four shows at the excellent Manhattan outfit 47 Canal (which also shows Anicka Yi and Josh Kline) has been more intriguing than the previous one. Did I mention that he has an ineffable way with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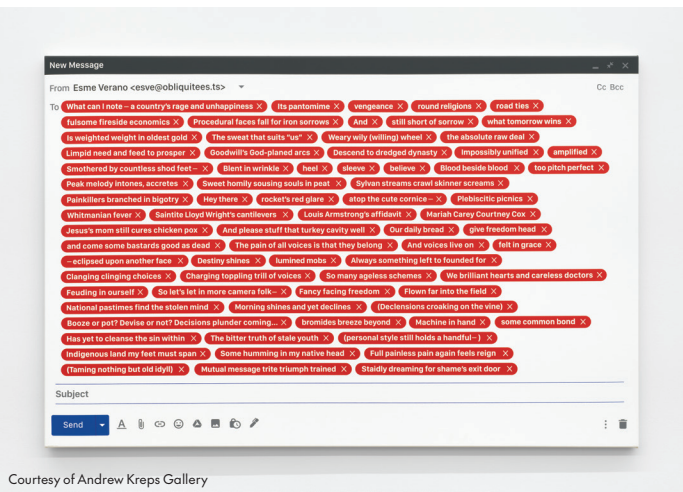
## 차발랄라 셸프 Tschabalala Self

2015년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셸프는 흑인과 지역사회의 생생한 초상을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한다. 그는 붓과 물감뿐 아니라 재봉틀, 천, 실을 활용해 미묘하고 내밀한 그리고 잊히지 않는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페이스 링골드(Faith Ringgold) 같은 선구적 예술가의 계보를 잇는다.

After finishing her M.F.A. at Yale in 2015, Tschabalala Self decided to keep working in New Haven, Connecticut and has been making paintings and sculptures that are lucid portraits of Black people and communities. She wields brushes and paint but also sewing machine, fabric, and thread, nodding to forebears like Faith Ringgold as she stitches together visions that are nuanced, intimate, and unforgettable.

차발랄라 셸프의  
〈Sapphire〉(2015).

## 대런 베이더 Darren Bader



1 Courtesy of Andrew Kreps Gallery



2 Courtesy of Andrew Kreps Gallery

지금까지 소개한 작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심지어 미국엔 한국에서 개인전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초대형 아티스트가 많다. 1980년대 초 소호에서 인지도를 높인 예술운동 ‘픽처스 제너레이션(Pictures Generation)’의 선구자 격인 신디 셔먼(Cindy Sherman), 루이즈 롤러(Louise Lawler),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들 중 2020년 더페이저갤러리에서 피카소와 함께 2인전을 연 리처드 프린스, 현재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단독 전시 중인 신디 셔먼을 제외하면 누구도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적이 없다. 언젠가 이들의 전시가 한국에서 열릴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또 미국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의 전시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많은 작가가 한국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종종 말한다. 물론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이 존재한다. 해외 갤러리, 특히 한국에 지점을 둔 갤러리들이 과연 한국의 다양한 작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을까? 이는 젊은 작가부터 원로 작가, 유명 작가부터 무명 작가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문제다. 지난해에 서울에 진출한 갤러리 에스터쉬퍼(Esther Schipper)가 서울과 베를린에서 한국 신진 작가 단체전을 개최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행보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대런 베이더가 있다. 무엇부터 소개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다재다능한 베이더는 엄밀히 말하면 조각가지만, 사실 ‘발견된 오브제의 시인’이라고 칭하고 싶다. 그는 라자냐에 hero인을 주입해 서로 다른 쾌락의 조합을 선보였고, 프렌치호른에 과카몰레를 채워 넣기도 했다. 고향인 뉴욕 모마 PS1에선 고향이 분양을 추진하는 전시를 열었다. 최근에는 AR 아트를 리움미술관에서 선보이고,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해 만화가에게 작품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신랄한 글도 썼다. 이처럼 그는 익숙한 사물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비스듬한 시각으로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이라 여기도록 유도한다.

Last but not least: Darren Bader. Where to even begin? Technically speaking, he is a sculptor, but would be better described as a poet of found objects. Bader has injected heroin into lasagna (a combo of disparate pleasures), filled a French horn with guacamole (a horn of plenty), and offered cats for adoption at MoMA PS1 in his native New York. He has also made AR art (seen recently at the Leeum Museum of Art), commissioned a set of comic books for the Venice Biennale, and penned uproarious texts. He invites his viewers to see the world at an oblique angle, from which familiar objects become new and strange—and full of possibility.

1 대런 베이더의 〈Untitled #5〉.  
2 대런 베이더의 〈Another Surfboard〉.

We are scratching the surface here, of course, and we are not even discussing the superstar artists who have never had a one-person show in Seoul. Consider just the “Pictures Generation” pioneers who made their names in the early 1980s SoHo, like Cindy Sherman, Louise Lawler, Robert Longo, and Richard Prince. None of those figures has had a solo outing here (though the latter was paired with Pablo Picasso by Page Gallery in 2020) but exhibitions of such giants will no doubt happen eventually. So, too, will more and more shows of fast-rising artists. People of both types regularly tell me how much they want to present their work in Korea. The bigger question is a perennial one: Will foreign galleries, particularly those with branches in Korea, actually champion Korea’s influential artists—young and old, canonical and obscure? It was refreshing to see Esther Schipper stage a group show of key emerging artists from Korea this summer at both her Seoul branch and her Berlin base. Let us hope that others follow her lead.